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 구경, 순환셔틀버스 타고 ‘오라잇~’

관광객 편의증진 위해 3개 권역 운행 시작
명소 둘러보는 5000원 1일 이용권 인기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은 강진군은 늘어난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산권역과 청자권역, 하멜 권역 등 3개의 권역에 순환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단돈 5000원이면 셔틀버스 1일 이용권을 구입해 하루 동안 강진 지역 모든 여행지를 원하는 만큼 돌아볼 수 있다. 순환셔틀버스로 강진을 여행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권역별 필수 관광 명소를 소개한다.



다산초당



백운동 원림



가우도 출렁다리

다산의 열과 숨결을 느끼다 '다산권역'

다산초당·백련사 등 강진 대표 관광코스

‘다산권역’ 셔틀버스는 강진만 생태공원, 석문공원 사랑+구름다리, 다산박물관, 백련사, 가우도 망호 등을 두루 들르는 코스다. 백련사와 다산초당 등 인지도 높은 강진의 대표 관광코스를 돌아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코스다. 다산초당 인근에 정착하는 코스로 순환셔틀버스를 운행하는 3개 권역 중 방문객에게 가장 각광받는 코스이기도 하다.

다산초당은 도암면 만덕리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의 18년 유배생활 중 10년을 보낸 곳이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목민심서’를 비롯해 500여권의 책을 저술하고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차 풀이던 부뚜막 바윗돌로 초당 앞마당에 놓인 평평한 바위인 ‘다조’와 다산이 평소 물을 떠 마시거나 차를 끓일 때 사용하던 샘인 ‘약천’, 다산이 초당의 주인이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성인 정(丁)을 새긴 초당 서편의 바위인 ‘정석’과 당 오른쪽 연못 중앙에 산 모양으로 돌을 쌓아 조성한 ‘석가산’ 등 다산의 숨결과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다산초당과 동백굴길로 연결된 백련사 또한 이 코스 안에 위치해 있다. 신라 말 창건되어 1211년 원묘국사 요세에 의해 증창된 백련사는 1236년 지방 토호들과 백련결사문을 발표하고 신앙결사(信仰結社)인 백련사 결사운동을 주창하였으며 고려8국사와 조선8대사를 배출해 명찰로 알려지게 된 역사적 명소이다.

또 백련사는 유배시절 다산이 해장선사와 교류하며 함께 차를 즐기고 학문적 교류를 하며 깊은 인연을 나누었다고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가우도 집트랙

다산도 반한 그곳, 하멜권역 '백운동 원림'

호남 3대 정원서 조선 선비 풍류 만끽

강진을 아우르는 3개 권역의 다양한 관광 명소들 중에서도 최근 화제가 되는 곳은 ‘하멜권역’이다.

하멜권역을 운행하는 순환셔틀버스는 강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작해 무위사, 백운동원림, 이한영 생가, 하멜기념관을 거쳐 다시 강진 종합버스터미널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국보 제13호 극락보전과 보물 제507호 선각대사 편광탑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무위사와 호남의 3대 정원 중 하나로 손꼽히며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15호로 지정된 백운동 원림 등 강진의 대표적 역사 명소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주목 할 만 곳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 115호로 지정된 ‘백운동 원림’이다.

백운동 원림은 월출산 옥판봉의 남쪽 경사지 아래쪽에 위치하며, 백운동 원림의 본가인 백운당(白蓮堂, 강진군 성전면)에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고려 시대에 백운암이라는 사찰이 있었던 곳이며, 계곡 옆에 ‘백운동(白雲洞)’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남아있어 ‘백운동’이라 일컫는다. 백운동 원림은 조선시대 이담로가 조성한 별서정원이자, 월출산 옥판봉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림의 뜰에는 시냇물을 끌어 마당을 돌아가는 ‘유상곡수(流觴曲水)’ 유구가 있고, 민가에서는 보기 드문 화계(花階, 꽃계단)가 남아있다.

고유의 전통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별서 원림 중 하나인 백운동 원림은 조선 시대 선비들이 문화를 교류하며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다산 정약용, 초의선사, 이시헌 등이 차를 만들고, 전해주며 즐겨온 기록이 있는 등 우리나라 차 문화의 산실이라는 가치까지 더하고 있어 꼭 둘러볼 만한 곳이다.

'가우도'와 '청자박물관' 청자권역

다양한 체험 즐기고 문화향기 느끼고

‘청자권역’은 강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작해 가우도 출렁다리, 고바우공원, 청자촌, 마량미항을 거쳐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다. 고려청자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등이 위치해 있는 청자촌을 들르는 코스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도 이 코스 안에 포함돼 있다.

2개의 출렁다리를 통해 도보로 섬을 돌아볼 수 있는 이색명소인 가우도는 2015년 전라남도의 핵심 시책인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며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또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2017~2018, 2019~2020 총 2회 포함되며 강진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주목받게 됐다.

가우도의 가장 큰 매력은 체험거리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출렁다리를 건너가면 가우도 전체를 한 바퀴 돌아 볼 수 있는 2.4km의 트레일을 비롯 집트랙, 요트와 제트보트 등 해양레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우도 내에 있는 청자타워-집트랙은 와이어 로프를 설치해 형성된 경사면에 하늘을 나는 듯 해상을 활강하는 친환경 레저 시설이다. 섬의 정상 한가운데 세워진 25m의 청자타워에서 대구면 저두마을로 하강하는데 1km 거리를 불과 1분이면 도착하는 짜릿함 때문에 인기가 높다.

천년의 비색, 강진을 대표하는 세계적 예술품인 청자를 만날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하다. 강진군 대구면과 칠랑면 일대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청자가마의 50%가 있다. 이에 고려청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해 1997년 고려청자 박물관을 개관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청자권역의 한국민화뮤지엄 또한 특색 있는 곳이다. 다양한 민화작품을 만날 수 있는 청자권역의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오는 6월 1부터 역대 왕의 초상화인 어진과 배갓등 등 왕실에서 사용되던 물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조선왕실과 현대민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2년에 한 번에 걸쳐 기획된 이 전시는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도보로 느릿느릿 구경하는 영랑권역 '사의재 저잣거리'

'조만간 공연' 등 볼거리 풍성

순환셔틀버스를 운행하는 3곳의 권역 외에 대부분의 코스를 도보로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권역이 있다. ‘역사와 힐링’의 대세속에 부상하고 있는 영랑권역이다.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 등 강진을 중심의 관광지로 구성된 영랑권역에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여행의 달 5월 ‘신상 여행지’라는 테마로 선정한 사의재 저잣거리가 위치해 있다.

주말마다 사의재 저잣거리에서는 1800년대 조선을 재현하는 특별한 공연의 장이 펼쳐진다. 조선을 만난 시간, 줄여서 ‘조만간 프로젝트’라 불리는 시대·인물 재현 프로그램이다.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은 사의재 저잣거리 곳곳에서 진행되는 꼭지(캐릭터 재현) 코너와 25분의 마당극,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꼭지 코너는 상시적으로, 마당극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2회에 걸쳐 사의재 저잣거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프로젝트는 10월 말까지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약 6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조만간 프로젝트’는 강진군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색적이다.

지난해 12월 강진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연 배우를 공개 모집해 서류전형과 오디션 등 1차 선발 과정을 거친 뒤 재현배우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연기, 안무, 문화해설, 관광 및 서비스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최종 아카데미 이수자에 한하여 재현배우를 선발했다.

주부, 고등학생, 자영업자 등 애환심과 공연에 대한 열의를 가진 26명의 군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현배우들은 단순히 공연뿐만 아니라 이색 포토존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공연 중간 강진의 특산품 소개, 판매 유도 등 강진의 홍보대사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사의재 저잣거리의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 공연.

제7회 무안 황토 갯벌축제

갯벌축제

황토갯벌 1m³의 가치

2019. 6. 14.(금) ~ 6. 16.(일)

해제면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

주최·주관: 무안군·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